

##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공모
- 회의일시 : 2017. 5. 25(목)
- 회의장소 : 창의예술인력센터 2층 회의실

### (연극분야)

#### 1. 중점 심의 방향

공연단체의 경우 비상업성과 신작 개발 노력을 단체의 실적으로서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공연장을 보유한 창작단체의 경우는 자체 기획, 작품 제작 노력을, 공연장의 경우 비상업적인 성과와 올려진 공연의 다양성을 중점 고려하였음

####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 공연장에 요청 자료(서류)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보완 개선 필요. (단체 및 공연장 직원의 운영현황과 실적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지원신청서류로는 단체에 대한 이해나 실질적인 충실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보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필요함

연극분야심의위원 일동

### (음악분야)

#### 1. 중점 심의 방향

심의는 최근 2년간 실적, 17년도 예정 사업, 인력 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총 신청 단체는 44건으로 비적격 단체를 제외한 39건이 최종 심의 단체에 올라왔다. 중점 심의는 단체의 성격이 비영리·영리의 측면에서 국고의 지원이 필요 요구되는지, 단체의 실적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페이퍼워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인건비 지출 및 세금 등이 투명한지를 통해 심의위원 5명의 면밀한 해석이 이루어졌고, 이후 심의위원의 회의를 통해 조율된 금액과 지원인력을 결정함 (기획사보다는 순수 예술 단체의 연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보조를 우선함)

####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이번 심의의 가장 큰 문제는 단체와 기획사 성격이 분리되지 않은 점에 있음. 공연·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이들의 음악회 등을 사업 목적으로 기획사를 꾸미고 있는 단체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그 설립 목적 단체가 이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연주·공연 실적으로 제출할 목록 역시 그들의 자주적 노력보다는 이 기획사들을 통해 음악회·연주회를 연 2차적 구조이기에 단체에서 기획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기획사로서 존립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음

두 번째 문제점은 경영·기획·무대 기술 등 지원 단체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임. 예를 들어 한 단체의 1명 지원 신청금은 어떤 단체 전체의 지원금과 맞먹음. 다시 말해 임금이라는 것은 적절한 수준(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임. 지원 단체의 규모는 크게 다를 수 있으나, 임금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인격을 바라다보는 시각의 편차를 말하는 것임

향후, 공연 예술 전문인력의 경우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 임금 수준은 지켜야 할 것임. 추후 사업 공지시 최저 임금 수준 명시함이 바람직하며 기획사보다는 공연 예술 단체에 정작 필요한 스태프를 우선 지원함이 필요함

음악분야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1. 중점 심의 방향

지원 부적합 결격 사유부터 점검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복지원의 형태를 보인 (사)밀물예술진흥원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춤용엠극장만 심의). 무용단체들의 기획·경영 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비무용단체·공연장들은 심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함. 무용 분야의 지원신청 수가 타예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기존 수혜자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했음. 기획·경영 인력과 무대 스태프 인력의 비율은 65:35 비율을 안배하여 인력을 배정 함

##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 전반기 인턴 지원 사업과의 확연한 차별성을 부각하여 이 지원사업을 공고할 필요가 있음

- 공연기획 MCT,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와이즈발레단 등의 몇 단체들은 인턴 사업과 기존 사원의 채용에서 특별히 차별성을 두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인턴 지원사업은 무용단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단원(무용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기획·경영 인력의 경우는 신규 채용에서 무용 전공자 출신 우대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을 공고에서 확실히 밝힐 것
- 무용계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 및 정규직 채용의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범무용계의 인지도를 높여야 함. 사업의 효과와 성과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무용계 홍보가 활성화되길 기대함
- 전반적으로 서류 작성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되며, 특히 몇 개의 단체는 서류 부실로 보일 정도이므로 기관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함

무용분야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 1. 중점 심의 방향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려 정부 및 지자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규모 축제 조직의 경우 재정적 여건이 여타 민간단체보다 유리한 상황임을 반영하였으며 규모보다 많은 인력을 지원 요청한 경우 적절한 인원으로 줄여 심의

####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전통예술 분야 단체 또는 공연장의 지원 요청이 비교적 적어서 심사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음. 또한 전통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종합 예술에 해당되는 단체와 공연장의 요청을 자칫 장르 우선의 원칙으로 배제되기 쉬우니 따로 기타분야를 만들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통예술분야심의위원 일동